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조 영 주

한경대학교 / 교수

심 은 정[†]

위드미 심리상담연구소 / 소장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변인 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탐색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20대와 30대 미혼 남성과 여성 430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다변량 분산분석, 경로분석 및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합리적 관계신념에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중독과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데이트폭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관계중독은 데이트폭력과 관련이 있었고, 그 관련성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성의 관계중독은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관계중독은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으며,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와의 관계를 경계선 수준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비합리적 관계신념, 관계중독, 데이트폭력, 성차

[†] 교신저자 : 심은정, 위드미 심리상담연구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11, 3층

Tel : 010-9116-3777, E-mail : ejshim201@gmail.com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다양한 형태의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데이트폭력의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4,136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9년에는 19,940건으로 41.1% 증가하였다. 2019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건 중에는 폭행 및 상해가 7,003명(71.0%)으로 가장 많았고, 경범죄 등 기타가 1,669건(16.9%), 체포, 감금 및 협박이 1,067건(10.8%), 성폭력이 84건(0.8%)이었고, 살인도 35건(0.3%)이었다(정혜원, 2020). 이렇게 볼 때 데이트폭력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신체적 상해나 성폭력과 같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실제 데이트폭력은 신고된 것에 비해서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데이트폭력의 발생 비율은 데이트폭력의 종류, 측정 대상 및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세 명 중 한 명 정도의 여성(37.3%)과 남성(30.9%)이 성폭력, 신체적 폭력 및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여성의 23.2%와 남성의 13.9%가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해본 것으로 조사되었다(Miller, & McCaw, 2019). 한국에서는 하예지와 서미경(2014)이 20대와 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폭력 경험을 조사하였을 때, 신체적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은 각각 53.6%와 49.5%로, 성적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은 각각 28.1%와 30.7%로 나타났다. 조우연과 김경희(201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하여 데이트폭력 경험을 조사하였을 때는 90%가 넘는 남녀가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가해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상호 가해

및 피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연구들(최은희, 2021; Renner, & Whitney, 2012; Rubio-Garay et al., 2017; Straus, 2011)은 쌍방 폭력이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고하며, 한 사람이 폭력을 가할 때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방어나 보복으로 가해를 가하는 식으로 폭력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보고되고 있다(김상경, 2019). 이와 같은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고려할 때, 데이트폭력 연구에서 가해와 피해를 통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가하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말한다(Straus, 2004). 심리적 폭력은 고함지르기, 모욕하기와 같은 언어적 공격과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 신체적 공격을 암시하는 위협을 말하며, 신체적 폭력은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거나 상대방을 발로 차는 것과 같이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여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폭력은 언어적 혹은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랑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이러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Miller, & McCaw, 2019). Exner-Cortens, Eckenrode와 Rothman(2013)은 중단연구에서 청소년기에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기에 우울, 자살사고, 음주 및 흡연 등의 물질 사용 및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데이트폭력은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 증상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bina, & Straus, 2008). 데

이트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이것이 결혼 이후의 부부간 폭력이나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정혜원, 2020)에서도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데이트폭력은 발생 빈도가 높고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기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서경현, 2009). 이현정(2018)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최근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서, 데이트폭력 예방과 사후 개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매개변인을 살펴보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와 30대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비합리적 관계신념, 관계중독 및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20대가 3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가 26.2%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원, 2020). 이에 비해 데이트폭력에 관한 상당한 수의 선행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이현정, 201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20대와 30대의 일반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llis(1986)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가장 큰 원인을 파트너 또는 커플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였다. Eidelson과 Epstein(1982)은 Ellis(1962)의 비합리적 신념에 근거하여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5가지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도출하였다. 여

기에는 의견 불일치에 관한 신념, 마음 알아주기에 대한 신념, 변화 가능성에 관한 신념, 성적 완벽주의에 관한 신념, 성 고정관념에 관한 신념이 포함된다. 첫째, 의견 불일치에 관한 비합리적인 신념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가치, 태도, 목표, 선호에서 의견이 일치해야만 한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이 강할 때는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것을 애정이 부족하다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둘째, 마음 알아주기에 대한 신념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이 강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파트너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위협 신호로 인식하게 한다. 셋째, 변화 가능성에 관한 신념은 자신과 파트너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러한 신념이 있을 때 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불일치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넷째, 성적 완벽주의에 관한 신념은 자기 자신과 파트너가 성적으로 항상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러한 신념이 있으면 성관계의 수행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 고정관념에 관한 신념은 남성과 여성의 욕구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믿는 것으로, 이러한 신념이 있을 때에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일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관계신념이 비합리적일 때 개인은 파트너와 연인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친밀한 관계에 접근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개인은 파트너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파트너를 통제하려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나치게 갈등을 회피하다가 한번에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민예지, 이수림, 2020; 정오영, 장석진, 2021; Baucom, & Epstein, 2013). 서수균(2011)은 비합리적 신념이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Möller와 De Beer(1998)는 비합리적 신념과 부부 갈등의 관련성을 보여주었으며, Möller, Rabe와 Nortje(2001)는 커플 관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커플의 분노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었고 역기능적 커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ddis, & Bernard, 2002). 민예지와 이수림(2020)은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대감 및 분노 등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은희(2021)는 비합리적 신념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정오영과 장석진(2021)도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의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하였다.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하위영역인 성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들도 있었는데, 서경현 등(2010)은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You와 Shin(2020)은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에게 의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데이트폭력 가해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에 대해서 “사랑해서 그렇다”, “연애할 때는 원래 그렇다”, “구속되어야 사랑이다”, “자신의 희생으로 연인이 나아질 것이

다” 등과 같은 역기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연구진(2006)은 성적 완벽주의를 제외한 네 가지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만족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보고하면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데이트폭력을 예측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 관계중독에 주목하였다. 관계중독이라는 개념은 사랑중독과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 연구자들은 관계중독이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갈망, 갈망 통제의 어려움, 친밀한 관계 부재 시 금단현상, 이로 인한 중요한 기능영역에서의 손상과 같은 중독장애의 특성을 보인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Costa et al., 2019; Redcay, & Simonetti, 2018; Reynaud et al., 2010). 김미림 등(2019)은 텔파이 연구를 통하여 관계중독을 “특정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친 욕구와 갈망을 가지며, 원하는 바가 관계를 통해 충족될 수 없고 오히려 해악을 주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달리며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나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관계중독과 관련이 있는데(송연주, 2019). 관계가 주는 의미 및 보상에 대해 갖는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미림 등, 2019). 아동기에 양육자에 의해 채

워지지 못한 욕구를 현재 관계에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관계신념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에 접근하게 되고, 이것이 관계에 대한 갈망과 집착의 중독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이지원, 이기학, 2014). 최진 등(2019)은 전통적이고 고정된 성역할 태도와 같은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가질수록 관계중독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아니지만, 이윤연과 장현아(2017)는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믿음인 유기도식이 관계중독을 매개로 데이트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진경(2019)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거나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인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관계중독을 부분매개하여 심리적 데이트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볼 때 관계에 대해 형성된 비합리적인 인지적 도식인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계중독 성향이 높을 때, 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허용하며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김상경, 2019; 박미소, 이지연, 2021; 박진경, 2019; 이윤연, 장현아, 2017; Pearson, 1991; Nemeth et al., 2012). 즉, 관계중독의 경향성으로 인해 관계에 대한 갈망과 이별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을 때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데이트폭력을 스스로나 파트너에게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Pearson(1991)은 파트너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개인은 폭력적인 연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계에 대한 갈망과 관계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Nemeth et al., 2012). 경험적 연구는 관계중독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지지하는데, 최진 등(2019)의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이 데이트폭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윤연과 장현아(2017)는 유기도식과 데이트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관계중독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박미소와 이지연(2021)의 연구에서는 유기불안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중독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관계중독을 매개로 데이트폭력의 피해 및 가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한 모형에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관계중독 및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관계중독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지적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관계중독과 같은 매개변인을 확인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입의 초점이 되는 개인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관계중독 및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성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차는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에서 꾸준한 관심의 주제가 되어왔으나,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해 왔다. 초기 데이트폭력 연구에서는 남성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경험적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에서의 성차가 일관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Chan, 2011). 데이트폭력 가해가 여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강희순, 이은숙, 2014; 김래은 등, 2020; 서경현, 2009; 양승애, 서경현, 2014), 남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김용미, 1996; 김시원, 박경, 2012; Jacobson, & Gottman, 1998), 성차가 유의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김상경, 2019; 김유정, 서경현, 2009; 이윤연, 장현아, 2017; 주지현, 2015). 데이트폭력 피해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가 남성에 비해서 더 높다는 보고도 있고(양승애, 서경현, 2014), 남성의 폭력 피해가 더 높다는 보고도 있으며(김상경, 2019; 김유정, 서경현, 2009; 정구철, 2021; 정혜원, 이승연, 2019), 성차가 유의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이윤연, 장현아, 2017; 주지현, 2015).

데이트폭력에서 성차를 잘 논의하려면 데이트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맥락 및 동기에서 성차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예: Archer, 2000). 실제로 데이트폭력의 기제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들은 남녀의 데이트폭력 가해가 갈등 해결 기술의 부족과 같은 공통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고(Straus, 2011), 다른 연구자들은 남성은 폭력을 파트너에 대한 권력의 행사와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여성은 자기방어를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Swan et al., 2008; Yllo, 2005).

이렇게 볼 때, 성차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면, 대상과 폭력의 종류, 다양한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Chan, 2011). 그러한 맥락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를 성차를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데이트폭력의 기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예방과 사후 개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관계신념, 관계중독 및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성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데이트폭력 연구에서의 성차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비합리적 관계신념, 관계중독과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중독을 매개로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한 경로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합리적 관계신념, 관계중독,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성차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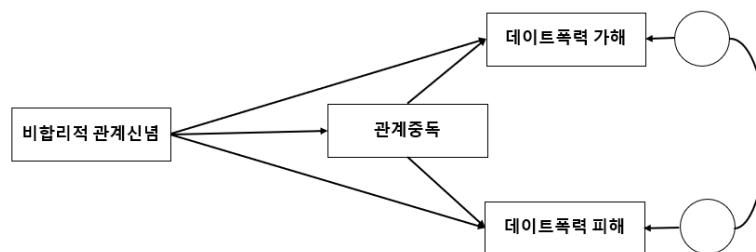


그림 1.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관계중독을 매개로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형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라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현재 연애 중인 20대와 30대의 미혼 남녀 44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를 활용하여 10명의 자료가 극단치임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한 총 430명의 자료를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 중 남성이 217명(50.5%)이었고, 여성이 213명(49.5%)이었다. 나이는 20세부터 39세까지로 평균 29.29세(표준편차 4.63)였다. 연애 경험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총 연애 횟수는 1회가 39명(9.1%), 2회가 65명(15.1%), 3회가 77명(17.9%), 4회가 44명(10.2%), 5회 이상이 205명(47.7%)이었고, 현재 파트너와의 교제 기간은 1개월에서 124개월까지로 평균 28.02개월(표준편차=26.99)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9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도 134명(31.2%), 부산·울산·대구·경상도 78명(18.1%), 대전·세종·충청도 36명(8.4%), 광주·전라도 23명(5.3%), 강원도 7명(1.6%), 제주도 3명(0.7%) 순이었다. 종교별로는 무교가 295명(68.6%)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74명(17.4%), 천주교 33명(7.7%), 불교 27명(6.3%)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1명(0.2%),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51명(11.9%), 2·3년제 대학 재학/졸업이 63명(14.7%), 4년제 대학 재학/졸업이 272명(63.3%), 대학원 이상이 42명(9.8%), 그 외 1명(0.2%)이었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바탕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직업별로는 전문가 57명(13.3%), 기술공 및 중전문가 11명(2.6%), 사무종사자 172명(40.0%), 서비스 종사자 37명(8.6%), 판매종사자 10명(2.3%), 농업, 임업, 어업숙련근로자 1명(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명(1.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합 종사자 5명(1.2%), 단순노무 종사자 7명(1.6%), 군인 1명(0.2%), 학생 68명(15.8%), 무직 36명(8.4%), 그 외 20명(4.7%)이었다.

측정도구

비합리적 관계신념 척도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Eidelson과 Epstein(1982)이 개발한 관계신념척도(Relationship Belief Inventory)를 연구진(2006)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진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아내’ 또는 ‘남편’이라고 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관계신념척도는 의견불치에 대한 신념, 마음 알아주기에 대한 신념,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 성적 완벽주의에 대한 신념, 성 고정관념에 대한 신념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척도에서 각 영역은 8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연구진은 신뢰도를 낮추는 11개 문항을 제외하고 29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6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전체 29개 문항 중 16개 문항은 역채점한 후 전체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의 연구에서 의견불일치에 대한 신념, 마음 알아주기에 대한 신념,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 성적 완벽주의에 대한 신념, 성 고정관념에 대한 신념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1, .67, .67, .70, .58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비합리적 관계신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4였다.

관계중독 척도

관계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인재와 양난미(2020)가 개발한 관계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관계중독 척도는 갈망, 금단, 통제결여 및 손상의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갈망은 친밀한 관계 경험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말하며, 금단은 파트너가 없을 때의 심리적 괴로움을 의미하고, 통제결여는 관계 경험을 축소 및 중지하려는 노력의 반복적 실패를, 마지막으로 손상은 관계 경험으로 인하여 학업, 직업 및 다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관계중독 척도는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하위척도는 각각 4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중독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계중독척도는 일반적인 관계중독 경향을 측정하도록 제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파트너와의 경험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관계중독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관계중독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이인재와 양난미(2020)의 연구에서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데이트폭력 척도

데이트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 등(1996)이 개발한 갈등척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2)를 김정란(1999)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적 폭력을 측정하는 11개 문항,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7개 문항, 성적 폭력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란(1999)이 제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도 22문항을 제시하고 자신에 파트너에게 가한 데이트폭력 가해와 관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다시 22문항을 제시하고 자신이 파트너에게서 입은 데이트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없음, 2:가끔, 3:보통, 4:자주, 5:매우자주)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데이트폭력 가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란과 김경신(1999)의 연구에서 심리적 폭력 가해, 신체적 폭력 가해 및 성적 폭력 가해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7, .78, .70이었고, 심리적 폭력 피해, 신체적 폭력 피해 및 성적 폭력 피해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0, .86,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와 데이트폭력 피해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5와 .96이었다.

연구절차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SSU-202202-HR-380-1)을 받은 후, 전문 설문 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에 설문을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설문에서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 방법이 효과

적이므로(이선영, 2017)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관련 링크를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대규모의 패널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탑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패널에게 공개된 게시판에는 연구대상자 모집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연구의 대상, 목적, 내용 및 방법, 비밀보장, 연구참여로 인한 이득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설문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남녀 성인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설문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설문 대행 기관을 통해서 1분당 100원의 적립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문 참여를 보상하였다. 설문 참여자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 하였다.

자료분석

우선 극단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활용하여 극단치로 확인된 자료는 제외하였다.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변인에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비합리적 관계신념, 관계중독, 데이트폭력 가해 및 데이트폭력 피해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SPSS 27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AMOS 18을 활용하여 그림 1에 제시한 경로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경로계수를 산출하고, 다집단 분석을 이용하여 경로계수에서 성차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그리고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이르는 경로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를 산출하고 붓스트래핑 신뢰구간을 활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경로분석에서는 연령과 교체기간이 데이트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곽성정, 우정희, 김남이, 2018; 김예정, 김득성, 1999; 박경은, 유영권, 2017; Karakurt, & Silver, 2013)에 따라 나이와 교체기간이 관계중독 및 데이트폭력에 이르는 경로를 포함하여 이들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회귀분석이 아닌 경로분석을 활용한 이유는, 여러 번의 회귀분석의 결과를 한 번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다집단 분석을 통한 성차 검증이 가능하며, 붓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 과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표 1에 포함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2 이하와 7 이하로 분포의 정상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관계중독과 큰 크기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r=.61, p<.001$),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와도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r=.38, p<.001; r=.33, p<.001$). 관계중독은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와 큰 크기의 상관이 있었고($r=.58, p<.001; r=.47, p<.001$), 데이트폭력 가해와 데이트폭력 피해

표 1.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N=430)

	1	2	3	4	5	6
1. 나이	-					
2. 교제기간(개월)	.13**	-				
3. 비합리적 관계신념	-.05	-.09	-			
4. 관계중독	-.03	-.17**	.61***	-		
5. 데이트폭력 가해	-.04	-.00	.38***	.53***	-	
6. 데이트폭력 피해	-.04	-.06	.33***	.47***	.89***	-
평균	29.29	28.02	3.10	2.16	1.50	1.52
표준편차	4.65	26.99	.52	.78	.56	.61
왜도	.00	1.47	-.35	.42	2.02	1.93
첨도	-.65	1.72	.02	-.60	3.43	3.66

** $p < .01$, *** $p < .001$.

간에는 .89의 상관이 있었다($p < .001$).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차는 유의하였고(Wilks' $\lambda = .90$, $F(4,425) = 12.48$, $p < .001$), 성차가 본 연구 변인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남성과 여성은 전체 비합리적 관계신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1,428) = .07$, $p > .05$), 남성이 여성보다 관계중독, 데이트폭력 가해, 데이트폭력 피해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F(1,428) = 14.72$, $p < .001$; $F(1,428) = 5.89$, $p < .05$; $F(1,428) = 18.12$, $p < .001$).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정(MANOVA) 결과 (N=430)

	값		df		F	η^2_{partial}	
Wilks' λ	.90		(4,425)		12.48***	.11	
	남성 (n=217)		여성 (n=213)		df	F	η^2_{partial}
	M	(SD)	M	(SD)			
비합리적 관계신념	3.09	(.52)	3.11	(.53)	(1,428)	.07	.00
관계중독	2.30	(.80)	2.01	(.75)	(1,428)	14.72***	.03
데이트폭력 가해	1.56	(.69)	1.43	(.39)	(1,428)	5.89*	.01
데이트폭력 피해	1.46	(.65)	1.25	(.33)	(1,428)	18.12***	.04

* $p < .05$, *** $p < .001$.

표 3.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관계중독을 매개로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계수 및 성차 검정 결과 (N=430)

예측변인	준거변인	남성			여성			성차 $\Delta\chi^2(1)$
		B	SE	β	B	SE	β	
비합리적 관계신념	→ 관계중독	1.04	.07	.68***	.78	.08	.55***	5.54*
비합리적 관계신념	→ 데이트폭력 가해	.00	.10	.00	.16	.05	.21**	1.85
비합리적 관계신념	→ 데이트폭력 피해	.08	.10	.06	.09	.05	.14	.01
관계중독	→ 데이트폭력 가해	.53	.06	.62***	.17	.04	.32***	20.68***
관계중독	→ 데이트폭력 피해	.38	.07	.47***	.14	.03	.31***	10.08**

* $p < .05$, ** $p < .01$, *** $p < .001$.

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의 경로모형에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경로계수 및 성차를 표 3에 포함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는 각각 남

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경로모형에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관계중독에 이르는 경로는 남녀 모두 유의하였는데(남성: $\beta = .68$, $p < .001$; 여성: $\beta =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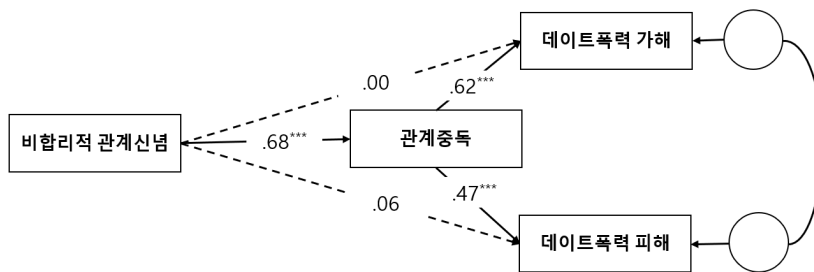


그림 2. 남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관계중독을 매개로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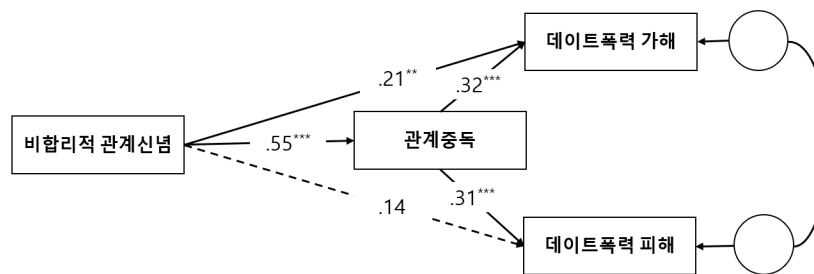


그림 3. 여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관계중독을 매개로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p < .001$),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경로계수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1)=5.54$, $p < .05$).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남성은 유의하지 않았고($\beta=.00$, $p > .05$), 여성은 유의하였다($\beta=.21$, $p < .01$).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남성: $\beta=.06$, $p > .05$; 여성: $\beta=.14$, $p > .05$). 관계중독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이르는 경로는 남녀 모두 유의하였는데(남성: $\beta=.62$, $p < .001$; 여성: $\beta=.32$, $p < .001$),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경로계수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1)=20.68$, $p < .001$). 마찬가지로 관계중독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이르는 경로는 남녀 모두 유의하였는데(남성: $\beta=.47$, $p < .001$; 여성: $\beta=.31$, $p < .001$),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경로계수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1)=10.08$, $p < .01$).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의 전체효과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 각각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유의하였다(효과크기=.42, $CI=.32 \sim .52$; 효

과크기=.39, $CI=.26 \sim .48$). 여성의 경우도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 각각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유의하였다(효과크기=.38, $CI=.29 \sim .49$; 효과크기=.31, $CI=.20 \sim .42$).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도 표 4의 관계중독을 매개한 간접효과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을 매개한 간접효과만 유의하였고(효과크기=.42, $CI=.32 \sim .51$), 남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관계중독을 완전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남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을 매개한 간접효과만 유의하였고(효과크기=.32, $CI=.21 \sim .43$), 남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관계중독을 완전매개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고(효과크기=.21, $CI=.07 \sim .37$), 관계중독을 매개한 간접효과도

표 4.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전체효과 및 직접효과와 관계중독을 매개한 간접효과

(N=430)

성별/예측변인	준거변인	전체효과 (신뢰구간)	직접효과 (신뢰구간)	관계중독을 매개한 간접효과 (신뢰구간)
남성				
비합리적 관계신념	→ 데이트폭력 가해	.42 (.31, .52)	.00 (-.15, .14)	.42 (.32, .51)
비합리적 관계신념	→ 데이트폭력 피해	.39 (.26, .48)	.06 (-.11, .21)	.32 (.21, .43)
여성				
비합리적 관계신념	→ 데이트폭력 가해	.38 (.29, .49)	.21 (.07, .37)	.18 (.09, .27)
비합리적 관계신념	→ 데이트폭력 피해	.31 (.20, .42)	.14 (.00, .27)	.17 (.10, .26)

유의하여(효과크기=.18, $CI=.09\sim.27$), 여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관계중독을 부분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는 경계선이었고(효과크기=.14, $CI=.00\sim.27$), 관계중독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여(효과크기=.17, $CI=.10\sim.26$), 여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관계중독을 경계선 수준에서 완전매개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미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비합리적 관계신념, 관계중독,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서 성차를 살펴보고,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비합리적 관계신념,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에서 부분적으로 성차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비합리적 관계신념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중독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중독을 보였으며,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 둘 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우선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성차를 살펴보면,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Jones, & Cunningham, 1996; Larson, 1988; Sharp, & Ganong, 2000), 국내 연구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의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연구진 등, 2013; 하상희, 정혜정, 2000). 최근 이루어진 박정윤 등(2019)의 연구에서는 의견 불일치, 마음 알아주기, 성고정관념과 같은 신념은 여성이 높고, 성적 완벽주의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비합리적 신념에서는 성차가 있더라도 전체 비합리적 신념을 고려할 때는 남녀가 비슷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남녀 차이를 이해할 때는 문화적 맥락, 결혼 여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관계중독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관계중독의 성차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보고된 바가 별로 없다. 하지만 Chang(2010)은 미국과 타이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관계에 대한 강박적 의존 양상을 설명하는 동반의존(codependency)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Hatfield와 Sprecher(1986)은 적어도 관계 초반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열정적 사랑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맥락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남성은 여성보다 연인 관계에 대한 몰입과 집착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는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차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에서 남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시원, 박경, 2012; 김용미, 1996; Jacobson, & Gottman, 1998) 및 데이트폭력의 피해에서 남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상경, 2019; 김시원, 박경, 2012; 김유정, 서경현, 2009; 정혜원, 이승연, 2019)과 일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게 더 많은 폭력을 가하며 동시에 남성이 여성에게 더 많은 폭력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데이트폭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남성의 폭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성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를 어느 정도 과장해서 보고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안귀여루, 2006; 양승애, 서경현, 2014; Chan, 2011; Jin et al., Eagle, & Keat, 2008).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구분하였으나 높은 강도의 폭력에 가중치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김래은 등, 2020; 김예정, 김득성, 1999; Archer, 2000)은 남성의 폭력 피해가 빈번하더라도 폭력의 강도에서는 여성의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데이트폭력에서의 성차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녀 모두에게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각각 .42와 .39였으며, 여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각각 .38과 .31로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에게서 중간 크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혼 남녀의 연인 관계에서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고 믿거나, 말을 안해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믿거나, 관계 변화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많이 가질수록, 그 관계는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건강한 관계를 해친다고 설명한 Ellis(1986)의 주장을 지지하며,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많을 때 그것이 파트너에 대한 공격성 또는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민예지, 이수림, 2020; 서경현 등, 2010; 최은희, 2021)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 모두와 유의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해와 피해의 행동에 공통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보고한 이명신과 이계민(2013)의 설명과도 맥을 함께 한다.

셋째, 남녀 모두에게서 관계중독은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관계중독 성향이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김미림 등, 2019; 박경은, 유영권, 2017)을 지지하며, 인지적 도식이나 신념이 관계중독을 매개로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박진경, 2019; 이윤연, 장현아, 2017)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관계중독 성향이 높은 것이 연인관계에서의 폭력 허용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상경, 2019; 박미소, 이지연, 2021; 박진경, 2019; 이윤연, 장현아, 2017; Nemeth et al., 2012; Pearson, 1991)과도 일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성인 남녀의 관계중독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변인들 간의 구체적 관계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관계중독은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의 가해 및 피해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높을수록 관계중독 수준이 높아져서 데이트폭력의 가해 및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연인 관계에서 관계에 대해 의견 일치, 서로의 욕구 알아차리기, 관계 변화 가능성, 성적 완벽주의 및 성 고정관념 관련 비합리적인 신념이 높을 때 남성은 관계에 대해 지나친 갈망과 집착을 보이는 관계중독 성향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관계에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상대의 폭력을 허용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 또한 관계중독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여성의 경우는 중간 크기인 것에 비해 남성의 경우는 큰 크기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데이트폭력의 가해 및 피해를 보고하는 남성에게 대해 개입할 때 관계중독은 특히 개입의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여성의 경우, 관계중독은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 가해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 피해 간의 관계는 관계중독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 피해 간에는 관계의 유의도가 경계선 수준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를 이해할 때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직접효과와 관계중독을 통한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의 경우 비합리적 관계신념 자체가 데이트폭력을 견인하기도 하고, 비합리적 신념에 영향을 받은 관계에

대한 지나친 갈망과 집착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는 관계중독에 의해 매개된다는 측면에서 관계에 대한 갈망과 집착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비합리적 관계신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연인 관계에서의 의견 일치, 욕구 알아차리기, 관계 변화 가능성, 성적 완벽주의 및 성 고정관념과 같은 신념에서 파생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 가해에서 여성의 공격 동기가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들(오윤희, 임성문, 2019; Próspero, & Vohra-Gupta, 2007)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여성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을 고려할 때는 관계에 대해 집착하는 개인의 성향 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인 관계신념을 찾아 교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우선, 비합리적 관계신념, 관계중독, 그리고 데이트폭력 피해 및 가해의 관계를 한 모형에서 검증하여 데이트폭력 피해 및 가해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데이트폭력 피해 및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및 개입에 있어서 초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대부분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20대와 30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면에서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관계중독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개 Peabody (2005)가 개발한 사랑중독척도를 이상우(2014)가 타당화하고 관계중독척도로 명명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제작된 것으로 관계중독을 측정하는 데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에 대한 지나친 갈망과 집착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작된 이인재와 양난미(2020)의 척도를 활용하여, 관계중독 성향을 보다 적절하게 측정하였다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합리적 관계신념, 관계중독, 그리고 데이트폭력의 피해 및 가해의 관계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통해, 데이트폭력 연구에서의 성차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데이트폭력 연구에서 성차 관련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과 변인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축소 또는 과장하여 보고하거나 왜곡하여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커플의 실제 상호작용을 관찰하거나 일지를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연애 중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커플 자료를 수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포함한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커플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풍부하게 관계의 역동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로 본 연구는 동일 시점에 비합리적 관계신념, 관계중독, 그리고 데이트폭력을 측정하

였기 때문에 인과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한다면, 인과적 관계에 대한 보다 명료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 혹은 40대와 50대의 연인 관계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 간의 관계가 다른 연령 집단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결과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순, 이은숙 (2014).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3(4), 288-298.
- 곽성정, 우정희, 김남이 (2018). 성인여성의 성인애착, 책임귀인, 자아존중감이 친밀한 관계의 심리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 75-84.
- 김래은, 구상미, 최선미 (2020).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7), 244-254.
- 김미림, 정여주, 이도연, 윤서연, 김옥미 (2019). 관계중독 개념 도출 델파이 연구. *열린교육연구*, 27(3), 199-218.
- 김상경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관계중독경향을 매개로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시원, 박경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역기능적

- 분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0), 121-141.
- 김용미 (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김예정, 김득성 (1999).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집단의 특성과 신체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87-211.
- 김유정,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민예지, 이수림 (2020). 연인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5(4), 263-279.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미소, 이지연 (2021). 유기불안이 심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248-261.
- 박진경 (2019).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성인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연인관계 내에서의 심리적 폭력 피해의 관계: 단절 및 거절도식과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윤, 이태현, 강리라, 윤소진 (2019). 기혼남녀의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연구: 배우자 조망수용과 일상적 부부호응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7(3), 505-528.
- 서경현 (2009). 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재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적응적 인지전략과 대인관계양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01-919.
- 송연주 (2019).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기 관계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에 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939-959.
- 안귀여루 (2006). 대학생의 성적 강요 경험과 성격특성, 태도 및 성장기 폭력 경험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47-61.
- 양승애, 서경현 (2014). 집착 성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315-336.
- 연규진 (2006).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규진, 연문희, 양지웅 (2013).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 57-80.
- 오윤희, 임성문 (2019). 대학생이 지각하는 데이트폭력 가해동기: 성차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8(1), 49-77.
- 우상우 (2014). 관계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론적 모형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신, 이계민 (2013).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아분화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2(2), 225-271.
- 이선영 (2017).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연인과 폭력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 탐색: 텔레비전, 개인적 요인, 성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3), 33-55.
- 이윤연, 장현아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91-209.
- 이인재, 양난미 (2020). 관계중독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2), 311-336.
- 이지원, 이기학 (2014). 불안애착 및 심리적 고통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지구구적 정서조절양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65-95.
- 이현정(2018). 데이트 폭력에 관한 최근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8(4), 153-161.
- 정구철 (2021).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155-161.
- 정혜원(2020). 데이트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KOSTAT 통계플러스*, 11, 28-39.
- 정혜원, 이승연 (2019). 성인진입기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 성별, 관계에 대한 압목적 이론, 관계 지속기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3), 263-282.
- 정오영, 장석진 (2021). 미혼 성인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453-463.
- 조우연, 김경희 (2015). 대학생의 아동기 가정 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9(0), 72-96.
- 주지현 (2015). 부모애착, 이성관계 집착 및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 (2021). 이성관계 불만족과 데이트폭력 가해 관계의 성별 비교: 비합리적 신념과 불안정 애착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 최가연, 채정희, 송연주 (2019). 성역할 태도, 관계중독, 폭력허용도 및 데이트폭력 피해 간의 관계: 성인 미혼 남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795-814.
- 하상희, 정혜정 (2000).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가정학회지*, 3(2), 27-38.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Addis, J., & Bernard, M. E. (2002). Marital adjustment and irrational beliefs. *Journal of*

-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0(1), 3-13.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Baucom, D. H., & Epstein, N. (2013).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Livittown, PA: Brunner/Mazel.
- Costa, S., Barberis, N., Griffiths, M., Benedetto, L., & Ingrassia, M. (2019). The Love Addiction Inventory: Preliminary findings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9(3), 651-668.
- Chan, K. L. (2011). Gender differences in self-repor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2), 167-175.
- Chang, S. (2010). *Codep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A cross-cultural study*. Doctoral Dissertation, Ohio University.
- Eidelson, R. J., & Epstein, N. (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5), 715-720.
-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NY: Lyle Stuart and Citadel Books.
- Ellis, A. (1986). Rational emotive therapy applied to relationship therapy. *Journal of Rational Emotive Therapy*, 4(1), 4-21.
- Exner-Cortens, D., Eckenrode, J., & Rothman, E. (2013).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ee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adverse health outcomes. *Pediatrics*, 131(1), 71-78.
- Hatfield, E., & Sprecher, S. (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9(4), 383-410.
- Jacobson, N. S., & Gottman, J. M. (1998). *When men batter women: New insights into ending abusive relationships*.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Jin, X., Eagle, M., & Keat, J. E. (2008). Hostile attributional bias, early abuse, and social desirability in reporting hostile attributions among Chinese immigrant batterers and non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s*, 23(6), 773-786.
- Jones, J. T., & Cunningham, J. D. (1996). Attachment styles and other predictor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3(4), 387-399.
- Karakurt, G., & Silver, K. E. (2013).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role of gender and age. *Violence and Victims*, 28(5), 804-821.
- Larson, J. H. (1988). The marriage quiz: College student's beliefs in selected myths about marriage. *Family Relations*, 37(1), 3-11.
- Miller, E., & McCaw, B. (2019).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80(9), 850-857.
- Möller, A. T., & De Beer, Z. C. (1998). Irrational beliefs and marital conflict. *Psychological Reports*, 82(1), 155-160.
- Möller, A. T., Rabe, H. M., & Nortje, C. (2001). Dysfunctional beliefs and marital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ried individuals. *Journal of Rational-Emotive &*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4), 259-270.
- Nemeth, J. M., Bonomi, A. E., Lee, M. A., & Ludwin, J. M. (2012). Sexual infidelity as trigger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Women's Health*, 21(9), 942-949.
- Pearson, J. (1991). Relationship dependent women: Their view on symptoms and recovery. *Virginia Counselors Journal*, 19(1), 3-13.
- Peabody, S. (2005). *Addiction to love: Overcoming obsession and dependency in relationships*. New York, NY: Crown Publishing.
- Próspero, M., & Vohra-Gupta, S. (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 perception of dating situ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Violence & Victims*, 22(4), 489-502.
- Redcay, A., & Simonetti, C. (2018). Criteria for love and relationship addiction: Distinguishing love addiction from other substance and behavioral addiction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25(1), 80-95.
- Renner, L. M., & Whitney, S. D. (2012). Risk factors for unidirectional and bidirection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young adults. *Child Abuse & Neglect*, 36(1), 40-52.
- Reynaud, M., Karila, L., Blecha, L., & Benyamina, A. (2010). Is love passion an addictive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36(5), 261-267.
- Rubio-Garay, F., López-González, M. A., Carrasco, M. Á., & Amor, P. J. (2017). The prevalence of dating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ist Papers*, 38(2), 135-147.
- Sabina, C., & Straus, M. A. (2008). Poly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5), 667-682.
- Sharp, E. A., & Ganong, L. H. (2000). Raising awareness about marital expectations: An unrealistic beliefs change by integrative teaching? *Family Relations*, 49(1), 71-76.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Straus, M. A. (2011). Gender symmetry and mutuality in perpetration of clinical-level partner violence: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4), 279-288.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wan, S. C., Gambone, L. J., Caldwell, J. E., Sullivan, T. P., & Snow, D. L. (2008). A review of research on women's use of violence with male intimate partners. *Violence and Victims*, 23(3), 301-314.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Yllo, K. A. (2005). Through a feminist lens: Gender, diversity, and violence: Extending the feminist framework. In D. R. Loseke, R. J. Gelles, & M. M. Cavanaugh (Eds.), *Current*

조영주 · 심은정 /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controversies of family violence (2nd ed., pp. 19-34). Thousand Oaks, CA: Sage.

You, S., & Shin, K. (2020). Influence of patriarchal sex-role attitudes on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Current Psychology*, 41(2), 943-948.

원 고 접 수 일 : 2022. 11. 01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1. 02

게 재 결 정 일 : 2023. 01. 27

The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and Dating Violenc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Young-ju Ch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Eun Jung Shim

With-Me Counseling Center / Direct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addiction (R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IRB) and dating violence (DV), with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Data from an online survey of 430 un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were analyzed utilizing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IRB, but men reported higher RA and DV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than women. Second IRB significantly explained DV for both men and women. Third, RA was related to DV, but the link was stronger for men than for women. Fourth, men's RA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RB and DV. Women's RA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RB and DV penetration, and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RB and DV victimization at a marginal level. The study'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relationship addiction, dating violence, gender difference*